

일본에서의 교환유학생활동을 마치며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김준희



약 4 개월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오차노미즈여자대학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싶어 매일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하교 후 마루노우치선으로 갈 수 있는 이케부쿠로나 오차노미즈 등을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도쿄에는 예쁜 공원이 많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날들이 많았습니다. 여유가 있는 날은 요코하마, 가마쿠라 등 도쿄 근교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멋스러운 건물이 많고 야경이 아름다운 요코하마는 저의 가장 좋아하는

일본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쿄 근교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동 시간의 구애가 적은 교환학생 기간 중 나가노나 야마나시 등 비행기 직항이 없는 여행지를 다녀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가노의 스와호와 야마나시의 후지산을 보며 감격했던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저는 유학생 대상 수업과 특설 일본어 수업을 위주로 수강했습니다. 일본문화나 일본어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학생들과 교류 할 수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류 소재와 관련된 전공 수업 시간에는 실습 시간도 있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는 본교에서 같이 파견오는 학생이 없어 타지에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지도교수님과 튜터, 교류회와 언어교환 프로그램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들, 그리고 같은 교환학생으로서 함께 즐거운 추억을 쌓은 유학생 친구들 덕분에 행복만 한 한학기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준 여러분께 모두 감사합니다.